

2023년 1월 22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전담신부 : <공석>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1월]



복음화 지향 : 교육자들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렵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상단 우측이미지 클릭)

오늘 전례 오늘은 음력 1월 1일로,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또한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성찰과 전파를 위하여 봉헌하는 날로 선언하셨습니다(2019년 9월 30일). 우리 모두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여 자주 읽고 묵상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합시다.

제1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 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2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환호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영성체 후 묵상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서로 복을 빌어 주며 시작하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잊지 맙시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서철 바오로 신부 ♣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떨리는 나뭇가지 같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 사이에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생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방향과 고통의 시간을 겪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낭비라 생각할 뿐 아니라 억울하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과 결점을 통하여 오히려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하느님 안에서는 이 약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바람 속 나뭇가지의 떨림처럼 우리는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악(惡)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다시 희망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이를 알아차릴 때 인간은 하느님을 찾습니다. 나 자신도 갈팡질팡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이를 함부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언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 성찰'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경험한 일들 안에서 일어난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을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아버지 하느님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그 감정이나 행동의 뿌리를 볼 수 있고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의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최후의 심판(부분)
로지어 판 데어 바이덴 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루카 12,40).

Four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Bible verse.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2023 년 구정 공소예절

우리 공동체에서는 1 월 22 일(주일) 공소예절을 통해 위령을 기억하고 연령들 위한 분향 및 연도를 예식 30 분 전부터 바칩니다.



시드니 성당 말씀나눔(그룹성경공부) 안내

[과목]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기간] 2023 년 3 월 ~ 11 월
[신청기간] 1 월 29 일(주일) ~ 2 월 26 일(주일)
[수강비] 40 불 (등록비 10 불, 교재비 30 불)
[참여공동체] 캔버라, 시드니, 버크힐
[문의 및 접수] 주정자 루치아 (0410 106 633)



국내 가톨릭 해외원조 역사

한국 교회 내에서 체계를 갖추고 해외원조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89 년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한마음한몸 운동'입니다. 한마음한몸 운동본부는 상시적인 모금, 원조 정책의 명문화, 심의 지침, 심의 결정 기구 설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한국 교회 원조 사업의 시범 사례입니다.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한국 가톨릭교회의 해외원조는 1992 년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1993 년부터 주교회의의 인성회가 시작한 원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980 년대 후반 한국 교회는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원조 요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징표를 식별한 주교회의는 체계를 갖춘 해외원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이 업무를 주교회의의 인성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 가톨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여러 수도회와 교구에서도 해외원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2022 년 제 31 회 해외 원조 주일 담화 -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1 월 마지막 주일은 한국 천주교회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2023 년 올해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소외받는 이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과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만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연설에서 "하느님께서 제 삼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여정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노력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곳이 어떤 방향인지 자문'하자고 촉구하셨습니다.

올해 해외 원조 주일에 모금된 금액은 우리 공동체에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식사준비 봉사예 동참하고 있는 '사랑의 선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 여정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참여를 바랍니다. [담화문] <https://cbck.or.kr/Notice/20230004?gb=K1200>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BHKNOgIck> [후원] 우측이미지 클릭

해외 원조 주일 2023.1.29.
세계에 전하는 한국 교회의 사랑

우리 함께 TOGETHER WE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행동합시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한국 가톨릭 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 기구입니다.

주요 해외 원조 사업

식량 위기 대응 인간과 가축을 위한 사료, 사육 시설, 사육 장비 지원 식량 안보와 식량 자립성 지원	기후 위기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난민 위기 대응 생존 지원(배식, 의료, 교육 등) 사회적응 지원(언어, 직업, 문화 등)
---	--	---

Caritas Korea 후원문의 02-2279-9204 홈페이지 www.caritas.or.kr

조지 펠 추기경 선종 관련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전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 월 10 일 갑작스러운 선종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조지 펠 추기경의 "일관되고 헌신적인 증거"와 "최근 개혁의 맥락에서 교황청과의 충실한 협력을 통해 결단력과 지혜로 기초를 닦은" 데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십니다.

"그분의 일관되고 헌신적인 증거 그리고 복음과 교회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며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전보 관련 기사: <https://tinyurl.com/yc2sxef2>



|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⑥
 택배 박스는 테이프 제거하고 버리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⑦
 보일러 사용 1시간 줄이기
 → 23.05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 뉴스

교황이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선포한 이유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말씀 주일 제정 배경과 의미를 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22 강] 모압땅에서 벌어진 불륜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민수기 4부 | 20,14-36 장

의정부교구

시노달리타스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한 안내 영상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공소예절 참례자수

1월 8일	성인 22 아이 5	1월 15일	성인 28 아이 11
-------	------------	--------	-------------

□ 우리들의 정성 (1월 14일(토)~20일(금))

구민식	김요한	안영규	양홍석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황병욱
교무금 \$355 (8 가정), 감사헌금(황병욱) \$10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1월 22일,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1월 29일, 연중 제 4 주일, 해외 원조 주일) 허준 안토니오, 이민정 글라라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2일) 마태오반 → (29일) 사목회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22일) 식사 (공동체 나눔) → (29일) 다과

♡ 류정은 안젤라(마르코반, 27일) 자매님의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령기도 2 (짧은 위령 기도)

https://maria.catholic.or.kr/mi_pr/prayer/prayer.asp?pgubun=10&pgubun=w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